

얼음 깨기

restart

교회행사

사람 대신 청소를 해주는 로봇이 출시되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던 일을 점차 로봇이 대신해 주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사이건 주부이건 택배기사이건 간에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당신이 하던 일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1. 현재 당신이 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또 어떤 일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2. 과거 새로운 일을 찾으면서 겪었던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5월

- 5일 어린이주일
“히즈쇼 뮤지컬”
- 12일 아버지주일
“김성중 교수 초청 장년 일일 말씀사경회”

6월

- 8-9일 더함 공동체 수련회
- 9일 어와나 1학기 종강
- 16일 더가족세미나(4주간)
- 28-30일 더원 공동체 수련회

경배 찬양

베드로의 고백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그물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담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견뎌드립니다

선교

[이화남 선교사]

남이공

1. 이곳의 주민들이 조용히 스며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2. 우물을 허락하시어 목마른 주민들에게 영과 육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길
3. 코로나로 흩어진 교인들이 돌아오게 하시어 더욱 부흥케 하시기를
4. 사역에 필요한 차량 구입 비용을 채워주시기를

교회 소식

한문장 큰 울림

1.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2. **기도하기 좋은 계절** 우리 영혼의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또 일과를 마무리하며 주님과 교제하시면 어떨까요? 교회당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3. **절전** 교회 내 모든 모임 후 나가기 전에 모임 장소의 전기 및 전자제품을 소등해 주시고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각층 로비와 화장실 등의 전원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것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 찰스 스펀전 -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행9:3-5)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살기등등하게 다메섹 원정에 올랐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비추는 강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박해하러 간 사람들이 섬기는 부활하신 예수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동행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바울은 사흘간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한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울을 만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 주십니다. 사울의 과거 이력을 알고 불안해하는 그에게 주님은 그가 복음을 위해 선택된 사람임을 알려 주십니다.

[나눔] 여행(일, 사랑)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했던 경험이 있나요?

1. 붙잡으려 갔다가 붙잡히다(1~9절).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2km 떨어진 수리아 지역의 주요 도시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3절)”을 보고 “음성(4절)”을 듣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빛과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밝은 빛을 보고 땅에 엎드린 사울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놀라 영겁 곁에 되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늘에서 예수의 답변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순간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만남의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열심을 내어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이후 이 순간을 가르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갈 1:16)”라고 회고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박해하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눔]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은 언제였나요?

[나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아프게 했던 경험이 있나요?

2. 아나니아의 순종(10-19a 절)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은 이제 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기 위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할 일을 알려 주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망설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가했으며, 무슨 목적으로 다메섹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여러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13-14절). 그렇게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행9:15-16)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다소 사람 사울을 눈여겨보셨고, 그에게 주실 위대한 사명을 계획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박해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 그의 사명 가운데 “이방인” 이 전도 목록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그의 복음 전도사역이 그리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사건을 사울의 ‘개종’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의견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울의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회심은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이고 다른 사명을 위임 받는 사건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문제이고 인생이 목표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눔] 나는 주님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을 순종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순종의 결과는 어땠나요?

[나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어떤 소명을 받았나요?

나눔	주일 말씀 [교회를 잔멸(殘滅)하는 삶에서 세우는 삶으로 / 사도행전 9:1-19]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기도	<p>바른 경외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소서.</p> <p>바른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며,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소서.</p> <p>바른 예배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하옵소서.</p>